



디에이치자이개포 '캐널', 보행로

시냇물 소리 들으며 소나무 숲 한걸음... 자연 품은 휴양캐슬

아파트의 미학(美學)

<31> 디에이치자이개포

‘더 게이트, 탄젠트’ IDEA 본상 수상
인공폭포 등 계류형 수경시설 다채
어린이 놀이터 등 감각적 디자인 눈길

지난 13일 현대건설의 야심작 ‘디에이치자이개포’의 조경을 눈에 담았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가까운 더블역세권이다. 바로 옆에 대모산이 있다.

◆ ‘더게이트, 탄젠트’로 디자인상 수상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거대한 문주를 포함해 주상복합건물로 둘러싸여 있었다. 단지 내 상가는 아직 분양이 진행 중이다. 문주를 지나자 하늘을 찌를 듯 세워진 고층 아파트 건물이 보였다. 마치 중세시대 봉건 영주의 거대한 성을 보는 듯 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문주의 이름은 ‘더 게이트, 탄젠트’로 국내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인 박제성 서울대학교 교수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이 문주는 최근 세계3대 디자인상 중 하나라고 불리는 ‘IDEA 2021’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문주 가까운 곳에는 캐스케이드(계단형 인공폭포)가 있어 자연 속 계곡의 시냇물을



‘더 게이트, 탄젠트’ 전경

보는 듯 했다. 단지 안에는 캐스케이드를 포함해 ▲석가산 ▲테라폰드 ▲캐널 등 계류형 수경시설이 많았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개포공무원아파트 8단지를 재건축해 지난 7월 입주를 시작했다. 단지 안에는 이사 오는 차량으로 분주했다.

입주민 A씨는 “어제 이사 와서 오늘 처음으로 단지 안을 산책하는 중”이라며 “잔디광장을 비롯해 편안하게 쉬기 좋은 공간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오픈 스페이스가 거의 없어 조경의 섬세함을 느끼기 좋다. 단지 중심부에는 석가산 연못과 커뮤니티 공간인 티하우스가 있다. 차 한 잔 하며 담소를 나누기 좋은 장소다. 2층에는 전망대가 조성돼 단지 내 정원을 여유롭게 조망할 수 있다는 게 현대건설의



단지 내 전경

설명이다.

◆ ‘테라폰드’, ‘캐널’ 등 수경시설 다수

석가산은 진경산수화를 형상화한 다른 아파트단지와 달리 직사각형 모양의 돌을 쌓아 올려 조성됐다. 군더더기 없이 소박하고 단순한 모습이다.

휴게시설에서 쉬고 있던 입주민 B씨는 “아파트 수경시설이 독특해 보인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라며 “단지 내 가장 인기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석가산 바로 옆 ‘테라폰드’는 계류형 연못이다. 단지 내 중심 수경시설로 자연 속 시냇물이 흐르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배경이 되는 대형 소나무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졌다. 디에이치자이개포에는 이 소나무를 비롯해 대형 수목들이 여러 군데 식재됐다.

선형 오픈스페이스를 둘러싼 보행로를 따라 물길이 형성된 캐널도 인상적이다. 바닥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올 때 들리는 물 소리가 제법 듣기 좋다.

수경시설 외에도 잔디밭과 나무들로 꾸며진 녹지공간 ‘인스피레이션 가든’, 사슴과 토끼 등 동물을 테마로 한 감각적 디자인의 어린이 놀이터와 현대미술관에서 볼 법한 조형물들은 앞으로 입주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디에이치자이개포는 분양 당시 ‘로또 아파트’로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총 16개동, 1996가구 규모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양천초등학교, 개원중, 중동중, 중동고, 경기여고 등이 근처에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석가산’



동물 테마 어린이놀이터



지하정원 전경

/손진영기자 son@



캐스케이드(계단형 인공폭포).

/정연우기자

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군인권센터,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 /사진 뉴시스
▲ 정부 “접종률 85% 달성 시 델타변이 차단 가능”

▲ 박영수, “화천대유 금품수수 의혹에 법적대응”
▲ 2억 뇌물 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무죄 판결



▲ 택배노조 “CJ대한통운, 합의 파기... 부분파업 돌입” /사진 뉴시스
▲ 서울시, 박원순 ‘마을공동체’ 사업 감사 착수